

|| 조선데스크 ||

공부하면 왕따되는 선수들



김 동 석  
스포츠부 차장대우

미국의 학생 스포츠도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한때 미국 사회는 대학 스포츠를 놓고 “지적 탐구의 전당인 대학이 왜 거대 스포츠 쇼 비즈니스에 참가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던지곤 했다. 여기서 ‘쇼 비즈니스’란 간단히 말해 전 국민을 열광시키는 대학 풋볼 경기를 가리킨다. 미국 대학 스포츠의 재정구조가 풋볼로 돈을 벌어 다른 ‘군소 종목’ 양성에 쓰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만큼 풋볼이 대학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응해 등장한 것이 ‘학생 선수(student athlete)’라는 개념이다. 프로 뺀다는 인기를 누리는 대학 풋볼 선수들도 엄연히 공부하는 학생이며 다만 운동을 병행할 뿐이라는 대응 논리다.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정립한 곳이 바로 미 대학 스포츠 총괄기구인 NCAA(미국 대학 스포츠 위원회)였다. 운동 선수들이 대회 참가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학점을 따도록 하고, 이들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 공부하도록 만들고, 프로팀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NCAA는 치밀하게 ‘학생 선수’의 개념을 정립해 나갔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학 스포츠가 존립 근거를 잃고 NCAA도 존재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 스포츠 실상은 어떨까?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가리켜 우리는 ‘학생 선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학생 선수일까?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한국에는 ‘학생 선수’가 없다. 다만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운동부에서 공부하면 왕따가 된다”고 말한다. 어쩌다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측은하게 여긴 교사로부터 “피곤할 테니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듣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고·대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선수들은 “도저히 수업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앉아서 책을 읽어 본 경험 자체가 없으니 내용 모르는 수업시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현장 지도자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며 따라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렇다면 미국의 풋볼 선수들은 어떻게 혹독한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일반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중·고교, 대학 시절까지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미시간 대학 풋볼 선수 출신이었다. 지금도 미국의 학생 선수들은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 히어로’로 활약하며 변호사로, 의사로 성장해 나간다.

결국 차이는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한국 각급 학교의 운동부 아이들은 그동안 학습의 사각지대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학교 당국의 방관, 성적을 올려야 하는 현장 지도자의 욕망, 자식이 공부와 답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학부모의 망설임, 그리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 선수의 무지(無知)가 합쳐 철육성의 ‘사회 부적응자 양성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의 ‘운동부 아이들’은 이 시스템에 희생돼 왔다. 이 시스템의 가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 후에야 학교 체육부 아이들을 우리는 ‘학생 선수’라고 부를 수 있다.

ds-kim@chosun.com

**朝鮮日報**

**The Chosun Ilbo**

우100-756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독자서비스센터 1577-8585 FAX 02-724-6299  
광고신청·안내 02-724-5838, 6666 FAX 02-724-5809  
구독·배달안내 080-900-0077[전국공용]

전화안내 02-724-5114  
morningplus.chosun.com  
ad.chosun.com

사장 方相勳 발행인·인쇄인 金文純 편집인 邊龍樞 주필 姜天錫 편집국장 金昌基

구독료: 한달 1만5000원, 1부 600원  
1964년1월1일 등록번호 가-9호·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아침논단 ||



이 민 진  
在美 작가

“  
공부 잘하는 딸 진로 관련  
어느 고교생 엄마의 물음  
은행 잔고보다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짧은 인생

”

작가로서 나는 종종 강연을 하게 된다. 기껏해야 책이나 읽을 줄 알고, 타고나길 세상과 불화하는 존재인 작가가 낯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은 참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독자들이란 언제나 작가에게 호기심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인의 이산(diaspora·나라를 떠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을 담은 다음 소설을 쓰기 위해 도쿄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도 그들은 늘 묻는다. 왜 작가가 되었는지, 왜 잘나가는 기업 변호사를 때려치웠는지. 초등학교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낼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일곱 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됐는데도 결국 작가의 길을 택한 내가 이상하다는 듯 질문을 던진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포럼에 참석했을 때 나는 버지니아 울프(영국 소설가·1882~1941), 돈, 자살이란 내용을 담아 ‘여성 작가’란 무엇인지 강연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좋은 질문을 했다. 그 어머니는 미국에 유학 중인 고등학교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선생님들이 미술과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칭찬한다며 걱정스레 나의 경험을 물었다(나는 ‘광장한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열성 엄마를 또다시 만난 것이다). 딸

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데, 아마도 어머니는 딸이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뭐라고 조언을 했던가? 첫째, 나는 그저럼 똑똑하고 창의적인 딸을 두셨다는 걸 축하했다. 물론 나는 어머니들의 현명한 관심을 이해한다. 1996년 변호사를 그만두고 2007년에 첫 소설을 내기까지, 그 11년간의 적막한 세월 동안 나는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 사실 소설로는 별로 큰돈을 못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에게 딸더러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도록 권해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법대는 돈이 많이 든다. 만약 그 딸이 법률 보조원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법조인이 되는 것도 싫어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짚색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수십만 달러나 되는 자금을 퍼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에 중 돌이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둘 다 변호사로 일하지 않는다. 뉴욕 퀸스의 단칸방에서 딸 셋을 키우며 열심히 일했던 우리 부모님은 종종 “너희들 그 학비만 하와이에 아파트로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놀리신다. 왜 변호사를 그만두었는가? 그 어머니는 물었다. 사실 솔한 한국인들이 나에게 그걸 묻는다. 나는 예술을 위해 고소득의 변호사 경력을

萬物相

2004년 한국갤럽이 한국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을 때 주요 종교 가운데 신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개신교였다. “종교가 정신적 문제에 만족스러운 답을 준다”는 답변이 개신교가 59.2%로 천주교(44.8%) 불교(38.1%)보다 높았다. “종교인들의 역할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개신교 76.1%, 천주교 67.4%, 불교 58.0%였다. 신앙심이 깊다고 응답한 신자 비율도 개신교(50.5%)가 천주교(26.8%) 불교(19.6%)보다 훨씬 많았다. ▶작년 여름 분당 도 교회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선교단이 43일 동안 탈레반에 납치됐던 사건은 한국 개신교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다. 인터넷 반(反)개신교 글이 넘쳐났고, 교회가 인질 석방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질책도 받았다. 뜻밖의 차가운 사회 반응에 부딪힌 개신교 내부에선 세상과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신교 NGO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달 일반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라고 답한 사람이 18%로 천주교(35.2%), 불교(31.1%)보다 훨씬 적었다. 2004년 갤럽 조사 때 신자들의 반응과는 판판

개신교 신뢰도 높이기



관용’ (25.8%) ‘사회봉사’ (11.9%) ‘재정 사용의 투명화’ (11.5%)를 주문했다. 최근 개신교계는 다원사회 속에서 개신교의 위상을 찾으며 ‘윤리 회복’과 ‘사회와의 소통’을 외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개신교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모색하는 이런 흐름을 계기로 사회 전체와 소통하고 이웃 종교를 배려하는 너그러움을 지녀 가길 바란다.

이선민 논설위원 smlee@chosun.com



이덕일 舍廊

[473]

지도자의 술선수법

임금에게 바치던 ‘진상품(進上品)’은 최고의 제품을 뜻하지만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은 임금 또한 적지 않다. 민간에서 성장했던 영조도 그중 한 명이다. 영조는 재위 20년(1744) 5월 병이 들어 약원(藥院) 도제조 유척기(兪楮基) 등이 침실에 들어와 영조의 생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영조는 묵변으로 만든 잠옷에 이불 하나 요 하나가 모두 무늬 없는 면주(綿紬)로 만든 것이었으며 병풍도 없었다. ‘영조실록’은 “민간의 호귀(豪貴)한 집보다도 못했다”라면서 “여러 신하들이 몰려 나와 임금의 검소한 덕을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전한다.

정조 20년(1796) 서유구(徐有菊)는 우연히 정조의 수라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일득록’에서 “마침 어선(御膳)이 올라왔는데 반찬이 두세 그릇에 지나지 않았고 그릇은 모두 흙이 있고 일그러진 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정조는 재위 17년(1793) 11월 왕실의 음식을 진상하던 사용원(司饔院) 부제조 서매수(徐邁修)에게 “요즘 조신(朝臣)들이 일상으로 쓰는 도자기가 모두 갑번(匠燔)이

며 하인배들까지도 그것을 본받는 자가 많다는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경기 이천의 사용원 분원에서 만든 특제 도자기가 갑번이다. 서매수가 “참으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보통으로 구워 만든 그릇도 쓸 만하네 하필 갑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제조를 금지시켰다. 정조는 자신의 어선 그릇을 보고 놀라는 신하들에게, “법만 가지고 정조를 시행할 수 없고, 말로 가르치는 것은 몸으로 가르치는 것만 못하기에 내 허물을 없앴 뒤에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순(金祖淳)은 ‘일득록’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함을 밝히는 것이 우리 왕가의 법도이다”라는 정조의 말을 전해준다. 영·정조 때는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나라 전체의 부(富)가 크게 신장된 때였다. 아무리 불황이라지만 보릿고개기 있던 1960~1970년대에 비할 바는 아니다. 영·정조의 생활태도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다.

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경우고, 무농약 인삼**

무농약 인삼으로 만든 경우고!  
휴대하기 편한 양갱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할인 판매**

동의 양갱고 24만원 → 18만원  
동의 경우고양갱 26만원 → 18만원

•연선된 국내산 원료(원산지증명서 첨부)  
•경우고제조기와 원료제품도 판매합니다.

**동의과학 080-7575-999**  
**www.eamslife.com**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 대출  
연 12%~ 법적비용만  
**02)588-6844**  
(주)동우캐피탈 서울 1372호  
내선번호 899-47 상계2동 테크센터B50506호

**수능시험생, 고3, 재수생 미국명문[주립]대학유학**

낮은 수능 등급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저렴한 미국 중·상위 대학에 유학을 보내십시오!  
생각보다 매우 쉽고, 100% 합격 실적  
강남 대치동 10여년 경험과 신뢰

▶실적학교 - Penn State, Michigan State, Purdue, U Iowa, 뉴욕주립대, U Minnesota, U Washington 등(매년 수십 명 실적, 조건부입학 가능)

**강남 아이비리그 유학원**  
**www.goivy.co.kr 02)3452-0516**  
3호선 도곡역(더원플러스) 갯마을구 250m 우리은행 7층(대치역과 도곡역 중간)

**외고 준비했던 학생들을 미국 명문 고등학교에 확실하게 합격 시켜드립니다**

**"설악면"토지 급/매/각**

**지주직접매각**

**경춘고속도로 청평IC 옆**

가격의 거품 완전제거!!  
주변시세 100만원 이상  
주변시세 완전 무시!!

**매입가: 방문 후 결정!!**

**만족할 만한 가격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문의: 031)585-3017~8**

**전국대리점 모집**

▶소자본 무점포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초대박 사업  
▶사무실 점포가 필요없는 직거래 사업  
▶본사에서 모든 업무활동과 엄격한 관리자 프로그램 지원

**남·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매월 안정된 고소득이 발생합니다.**

**★ 지사는 지역별 1곳 선착순 ★ 대리점 및 영업소는 무점포**

**(주) 태원 F.S**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대리점 상담문의 : 1688-5992**

**국내 최면학계 선구자 류 한 평 박사 특별지도 최면심리전문가 과정**

**배우면서 놀라는 심리조종술**  
나도 구하고 남도 돕는 전문가가 된다!  
**3초만에 잠드는 압축최면! 불면, 스트레스가 썩! 자신감고취, 잠재능력 100%에 도전한다!**

▶ **일시 : 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6시**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수련기간 : 3개월 매주 1회 총 12회 ▶ 수련비 : 95만원 (선착순 20명)  
방문시 최면공개강좌 DVD 무료증정

**제26기생 연수내용** (개원 42주년 기념 “자신감 살리는 오디오최면” CD 특별증정)  
자기최면 / 타인최면 / 자율훈련법 / 기억력, 집중력증강법 / 최면마취법 / 습벽교정 / 성격개선 / 통풍자기조절법 / 최면퇴행요법 / 공포증, 떨림, 우울, 불안 배론 치유법 / 마음 다스리기 NLP 핵심기법 등  
모든 강사는 원장특화 DVD(비디오)로 대체 수련 가능

42년 역사! “대한최면심리학회”의 최면지도사 자격증 취득 / 자격증 구분 : 민간 “미국상담심리치료학회”의 심리치료전문가 공인자격증 취득 가능

**최면심리전문가 양성, 통신교육 과정**  
- 최면심리전문가 정규 수련 과정 녹화 비디오(DVD)를 매주 우송(교재포함)  
- 최면지도사 자격증 취득 - 정규과정 3회 청강 가능  
- 신청은 아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됨 - 수련비 : 9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8601-04-042766 (예금주 : 대한심리연구소)

**류한평 박사** 대한심리연구소장, 대한최면심리학회장, 모던랜드의과학 석좌교수, 40여년간 4천여명 문화예술, 예술, TV출연, 대학출강, 기업특강, 심리치료, 범죄수사 등에서 활약한 한국최면의 개척자, 자기최면, 최면교실, 타인최면, 성격개조 등 20여권 저술  
세계명화문화재단(WUM), 2007 대한민국교육혁신대상 수상  
**\*오른팔이 무겁다\*로 마음을 다스린다**  
심리학박사 류 한 평 지음 / 책값 12,000원 / 주문배송

최면관련 중요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심리연구소** 홈페이지 : **www.ican.co.kr**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00번지 금원빌딩 4층, 전화 02)763-7226 팩스 763-1717